

주요 기사

2면 지대 취생 상태	4, 5면 6, 9면 특집	6면 회국인 전료소
만든 이들	사석우 박은근 박은진 정희아	정영호 김재민 김정민 김지연
편집자 박은근 박은진 정희아	주필 수정희 김정민 김희준	수감 정영호 사석우

# 본교 치전원 BK21 사업단 선정

김도진 기자 / hycshiny@hanmail.net

지난 4월 29일 발표된 2단계 치전원(BK21-9) 사업단에서, 우리대학 '치외학전문대학원 BK21 사업단(단장: 박은진 교수)'이 정문서비스 분야 전국단위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로 인해 우리대학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4년간, 6~7억 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우리대학의 BK21 사업단은 치외학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정문서비스 인력과 정문과 통사어, 세계 비교 수준의 연구업적을 발표하는 대학으로 발돋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학술취약과정(기초 연구과정, 석사과정)과 전문취약과정(치외학전문대학원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핵심취약과정에 신설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학술취약과정은, 일반대학 졸업생이 치외학전문대학원의 각 기초 및 임상 치외학 과실로 입학, 석사과정을 함께 하는 것으로써, 치외학분야의 일반 및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연구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교수 체계의 연구발전, 연구 및 인력의 지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출발선 학생의 국제적 감각과 세계적인 연구능력 확보를 위해 해외 학과방문, 해외 실험실 연수과 지원 및 해외 영어 지원되고 ▲출발선 학원은 해외의 우수한 교수들로부터 강의를 받고, 국제학업자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전문취약과정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상당수위의 정문진

보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기초의 정문법/교실별 수업을 실용성능의 통합교육과정으로 개편 시론과제 ▲임상교육을 강화하고 ▲3학년 2학기부터 시행되던 임상습습시기가 한 학기 앞까지져 온다. 또한, 임상교육과정의 국제화를 위해 ▲3학년 혹은 4학년 임상실습 중 2주에서 2개월까지 국외의 유수한 대학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포함한 지원이 아까지며 ▲국외임상실습은 본교 임상실습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양성 세계 최고의 연구대학을 목표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핵심취약과정을 통해,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대학 및 전문 졸업과 동시에 기초 및 임상 치외학 교실에서 3년간의 연구를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치외학기법지식이 확고한 고급연구자를 양성하며, 치외학에게 필요한 우수한 연구인력 및 교수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학위 과정 동안 집중급 경역 및 생활이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예상 선발 인원은 3~4명 가량이다.

이 사업의 안정된 배후를 교수의 "BK21사업 지원을 받

아 우리 치외학전문대학원이 치외학연구 및 교육에 정진하여 7년 후가 되면 차근차근은 전혀 다른, 세계 치외학계를 선도하는 경북대학교 치외학전문대학원이 되리라고 믿는다"는 기대감을 나타낸다.

한편, BK21 정문서비스 분야는 국제 교류 서비스 사업 개발에 대한 정문서비스 정책체제를 유지하고, 전문대학원으로 정책의 고급화실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사업이다. 전국단위사업에서 치외대학 16%, 치과대학 5개, 경영대학 4개 사업단이 선정되었고, 우리대학교 치외대학 치외학전문서비스대학원 사업단(단장: 박은진 교수)도 포함됐다.



본교 BK21 사업단 선정 기념 촬영 모습

## 스물 두 번째 6.9계 "함께하는 세상"



6.9계 행사를 위해 모여 화합을 이룬다.

지난 5월 12일~19일 전국 치과대학원·치외학전문대학원 연합에 우리 학교 본교 학생회가 주관한 제 22회 6.9계가 본교 학생회 및 캠퍼스 곳곳에서 실행되어 열렸다. 전학년이 손님을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온인일대를 뛰어 본 행사를 무사히 마쳤음에 모두가 자족을 보낸다.



본교 학생회에서 신원부서와 의도 캠퍼스가 열렸다.



자율적인 팀이 열었던 본교 학생회



교내봉사활동에 참여한 및 봉사 도모를 지원한다.

## “아픈 이보다 아픈 마음을 치료한다.” 이주 노동자 치과 진료소 “구민 교회”



박재안 기자 / alzaian@naver.com



경제적인 격차 때문에 중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필리핀 등지에서 건너온 외국 필러들은 한국인 배우 노동자들, 그들의 무국적이라는 것들을 걱정 힘든 참이었던 몸이 아픈 필러들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

대구 칠구 남산동에 있었던 구민교회는 이젠부터 외국인 배우 노동자 사무소의 상담소가 되었을 것이다. 정 창래목회사 사육회 회장인 장치(장경중 사)를 위한 치과외과에 이주 노동자들의 치과 치료를 의뢰하였고, 장 남회목사와 장치 창로 함께 1998년 8월 치과 진료소 개소식을 가졌다.

최근 유년어 근처로 자리를 옮겨 치과 진료활동을 하고 있으며 3명의 전사 피임을 포함한 5명의 개업비가 배우 한 명씩 들어가면서 한지를 본다. 1시부터 3시까지 스케줄링을 하고 3시부터 5시까지는 밤치, 인공치, 용지치로 등의 강의를 한다. 또한 보철 환자에게는 개업비용에서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다. 어시스트는 대구보건대학 치과학과 학생들의 담당이며 본교의 총재인 허우(본3)도 이곳에서 봉사하고 있다.

또한 실용 재료, 턱관절 문제, 임플란트 문제 등을 상담해주는 상담소의 외국어상담을 위한 한글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한글상담을 위한 예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단한 “이주 노동자들의 영어”의 역할을 하고있다. 이주 노동자 진료소는 구민교회의 지원에도 작심자 병원 등에서 여러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에 편입이 운영되고 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내리는 이러한 작은 도움과 손길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잊고 사는 이들에게 더욱 큰 위로를 다가가게 될 것이다.

작은 봉사 작고하나 김경섭 “3년의 개업비가 들어가서 치료하기 때문에 진료받는데 대한 부담감 없는 것입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부끄럽지요. 다만 세로시장이 있다면 회사소통이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중국에서 온 자 오래된 국적인데나, 조선족 친구가 쓰는 패턴 회사소통이 편하지만 이주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진료기구나 재료 등이 부족할 것, 진료실이 하나뿐이라서 충분한 많은 환자를 볼 수가 없다는 점 등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좋은 인력들도 오고 여러 거점에서 공인도 가져다주어서 못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봉사자 이해민 “부모 환아 관리와 간단한 입수 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공단, 농공공단 뿐 아니라 열거 인종이나 필러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치과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료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치료가 감사할 때에야 있음을 느끼고, 그렇지만 하루에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수가 한정되어 있어 치료가 불편해준다고 못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중국인 강경 “외국어 못 하는 저쪽, 어디도 할거만 하면 잘 여기서 설명해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나 다른 중국인들도 받게 할 수 있어서 다른 병원을 찾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심리적인 위안이 되어 줍니다. 무엇보다도 치료대기시간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보던 시간가는 날도 모를 정도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치과 센터가 많이 더부 주사서 고마워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 주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좋은 한국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좋습니다. 꼭 치료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 누구나 예술을 안다!?

정희서 기자 / break79@lycos.co.kr

일상에서의 ‘예술’이라는 단어의 의미

Michael Jordan의 멋진 경기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그 사진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술’이란 단어로 감사를 보낸다. 또한 우리 무척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경들 중에는 ‘조각’이 정말 많다’는 의미로 ‘조각’이 예술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다. 이러한 우리는 최고의 찬사라는 의미로 ‘예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원래 ‘예술’이란 어떤 의미일까?

‘예술’의 본래 의미

Art는 무엇을 만들어 내는 고대 그리스어 ‘techné’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이는 말의 ‘technique’의 어원이기도 하다. ‘art’의 기원은 ‘기술’과 ‘예술’의 차이를 나타본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예술’은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창조하는 것이고, ‘기술’은 실용성에 유용하게 쓰이는 공예를 만드는 것이다.

예술은 ‘일대일’을 가진다.

그렇다면 단순히 타인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예술’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수도 아닐수도 있다. 그 이유는 같은 일 국이나 성취를 보고 남 관객들의 반응을 모두 다르게 때문



이다. 어떤 이는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예술의 상대성 ‘예술’의 개념 자체를 호호하게 만들어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술에 절대적인 척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예술의 개념은 절대성을 결정한다.

고요의 지평심을 누군가 똑같이 그렸다고 가정하자. 그것을 ‘예술’이라 말할 수 없다. 남이 한 것을 그대로 베끼는 것은 예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대일’을 결정할 수 있는 예술의 명초한 속성이 ‘개인’임을 알 수 있다. Michael Jordan의 농구 기술이 타인의 그것과 차이가 없었지만, 사람들은 ‘예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을 것이다. 또, 조부가 남들보다 ‘말 잘 듣는’ 아이를 부르셨다면, 이 문구의 Copy write는 ‘예술’이라는 단어를 본고 문구로 사용하지 않음을 것이다.

개성 + 감동 = 예술

‘예술’은 개성과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속성, 이 두 가지로 인해 최고의 찬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타인을 감동시키면서, 다른 것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별하고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 ‘예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두 가지 성질을 가진 인간이 모든 영역은 ‘예술’이라 불릴 수 있다.

## <PD수첩-치과의 위험한 비밀> 방영 그리고 그 후...

유경희 기자 / ykh1942@hmail.net

지난 3월 30일 PD수첩-치과의 위험한 비밀이 방영되면서 치과에 온 아내와 서로 전전적으로 하지 않은 과방이 일고 있다.

1989년 '당첨의 시간'은 치과의사에게 많은 소득되지 않은 거구의 전염을 받은 후 5명이 14명이 감염된 것으로서 미국 전역에 흔한데 감염될 일방이 많았을 사례가 있었다. 어떤 PD수첩에서는 인공치과 후 수내치과에 걸려 사망한 사건이나 오일전 치과물수로 인해 뇌염이 발생했다고 소문을 잘 어 소문한 세 통을 팔면서 치과의 부적절한 무상상태에 대한 고발을 하였다.

### 1. suction tip, mirror 등을 쓰고 또 쓴다.

같은 185cm에 머리 높이까지 계속 사용하는 일부 치과기사와의 물적각을 오해를 받음으로 보여주었다. 간혹 살균수로 닦아내도 다시 손으로 잡아서 타이핑에 놓이는 위험사의 용성이 이어진다. 구강내에서도 높은 소독력이 없고 반복해 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2. mask, glove를 착용하지 않고 시술한다.

mask, glove를 착용하지 않는 치과이시용한 아내의 기구를 입지 않은 채 치료를 하거나 진료용 한다가 입혀진 것은 손으로 다시 치료를 하는 모습 볼때까지도 확인했다.

### 3. 오일전 치과물수를 사용한다.

치과의 치과물수를 검사해서 1cc당 1만 마리의 세균이 세 식되고 있었다.(수수 기준 : 100000/1cc)

### 4. handpiece를 고압멸균하지 않는다.

헨드피스 내부를 전자파멸균으로 살균해 감염성 세균이 왕을 보여준다. 살균술으로는 살균한 기능에서 불균이 되지 않으므로 헨드피스를 반드시 고압멸균기로 소독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헨드피스의 역류현상으로 인해 용입이 발생하고 거구 내로 들어오던 실리카재 등이 다른 환자에게 옮겨질 수 있음을 고발한다. 인공치과 시 쓰는 3호 살균술은 오로 된거나 이에 그냥 끌어주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 5. AIDS, 간염 등에 전염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2000여 명에 1만 명 보정자 및 간질 환자가 있으며 C형 간염의 경우에도 2000여 명에 이한다고 한다. 간질 바이러스의 경우 혈액 내 밀도가 높고 체액에서 오래 버틸

수 있어 바이러스보다 감염률이 10~100배나 더 높다. 치과 치료 시 자신의 에이즈나 간질 감염가능을 알리지 않는 환자도 많아 감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 6. 병원 유지를 위한 저가용 1회용품의 가격

mask 100원, suction tip 50원, 헨드 소독소 170원, 약한이 40원 등으로서 저렴한 위생 용품과 총 비용은 600~700원으로 계산된다. 헨드피스는 3천~1500원 선으로 고압멸균시 3%의 수당단락을 야기한다고 한다.



### ▶ 방영 후 시민들의 심입안은 더욱 커지

(당연한데 사용은 얼마 내어 보며 꼭꼭(국경일)은 연명할 의지 끝까지 가지지 않지 않는 가운데 PD수첩의 이런 프로그램은 치과에 대한 국민들의 심입안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방영 직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치과이시 영명은 원구 500만원으로 병원 1회로도 하나도 없이 있어서 소독을 못한다니 그게 말이 돼."며 분노를 터뜨리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가득했다. 참대까지도 "치과 약가는 사들인 보는데 프로그램은 보고 나니 치과 기기가 꺼리겠다" "치과병원 원의 의료기기 헨드 소독을 방해하러 한다. 보건복지부에 민원접수를 하자" "이러하는 그대로 치과이시 위생관리에 소홀한 치과 너무 무책임하다" "소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범죄행위" 등의 많은 타사가 올라지고 있었다.

### ▶ 보도 내용에도 문제점 많다

현재간에 처했던 전국 20여 개 치과를 조사해보았다고는 하나 통계가 수서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물과 커해서의 현재를 한 후 전체의 일단 양 한층에 내놓은 것은 좋지 못했다는 치과의 가장 많았다. 외국과의 비교부분에서도 수십 명의 한자를 보여 병원 운영이 가능한 우리나라에 비해 하루 5~10명의 환자만 보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미국과 외국치과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양국을 단순한 비교대결을 하는 등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또한, 관할의 치과와 대공립의 치과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기구를 사용 후 고압 멸균해야 하고 의거해분해 한다는 주장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치과 치과시 원거제교도들 제시분야 특성이 지적 받은데도 헨드

피사 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으나 조공란이 심의되면 교정치료 할가는 30만이라고 주장하고 실용 단행의 할가에는 50만 하나의 재빨리만을 보여주는 등의 허점이 많았다.

### ▶ 뿌리 깊은 불신감이 더 큰 오해를 불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를 강하게 과대 조망했다" "방송이 너무 편파적이라" 등의 치과이시 부른 글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적이 설명을 다루는 의도에서하는 단 하나도 소문을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날카롭게 따지고들었다. "치과 위생문제에 파장이 이렇게 커진 때에는 치과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감이 '물론이 부적절한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자라난 심입안을 잘라 죽여 죽은 예에서도 "그러한 현상하는 용어와 잘 같은 무언 하는 것이냐"라 한말의 방영 치과에 풍사시용에 대한 논란은 또 한층더 어려서 볼 것으로 보인다. 많은 치과이시 네티즌들은 "수입이 년을 일종의 징벌제였는데 수시간에 부재입적으로 예도되고 나니 지난 세월이 무어라하겠다"고 말했다.

### ▶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감 회복이 가장 큰 숙제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감염행위와 관련하여 치과에는 어느 의 불신감에도 여했다고 한다. 거구의 종류도 다형인데 같이 방영 또한 다형적이 때문이다. 소독, 헨드를 위해 많은 수의 거구를 강하게 놓아야 한다는 것도 하지 않은 부당이 잘다 소오되는 총 비용의 20만 원선에서 400만 원선까지의 의료비 할 수기도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주었다. 리용을 많이 끌어 진료의 질을 높여도 다른 물적각을 병원과 똑같은 진료비를 받아야하는 현실에서 치과의사도 할말이라는 5대안으로 보든 것을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물론 방송에서 보여진 것과 같은 무분별한 징벌제도는 정부 발의 시정되어야 하며 치과에 내부의 자정작용과 관리의 자성이 요구된다. 또한 치과내의 시설분야 감염 관련 교육목적을 현실적으로하는 불가능한 것으로 사후해리기보다는 감염 방지의 중요성을 통해 의하고 실천하려는 의식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치과이사와 환자 간의 무너지지 않는 신뢰감 회복일 것이다. PD수첩은 프로그램 방에서 "치과 소독현건이요"라고 꼭 물어보아야 국민들을 자극한다. 이 불신감은 우리 병원을 그렇게 알리고 인명을 물어놓거나 원의 보보하며 방사하는 안락을 한다고 할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해 줄려는 것은 앞으로 치과의사의 길을 걷게 될 무너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 6.9제 행사 부문

김영민 수습기자 / kyonm@naver.com

각 페스티벌, 니사금 선발 대회, 왁스 커피링 대회가 열려



니사금 선발 대회에서 우승을 한 정교 박세영, 홍성민 배우

1월 12일 광복대학교 본교 캠퍼스에서 전국 11개 대학에 학생들이 모여 6.9제 행사가 시작되었다. 개최지는 광복대 치매 학생회장의 개회식 및 개회 선보, 광복대 치매 학생회장의 개회식, 대명치매협회 회원이 동성상 추시 순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 후 대명캠퍼스에서는 각 페스티벌 및 니사금 선발 대회가 진행되었다. 각 페스티벌은 사운드 Auto Reflex의 오렌지 퍼멀메이드를 시작으로 각 대학 1개 팀 및 초대기수 등의 공연이 1, 2부를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1부는 사운드 Auto Reflex, 오렌지 Point & Line, 단국대 사람들, 연세대 C&O 무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는 광복대

CMA 밴드, 원광대 스타밴드, 장남대 CDC순으로 일렬로 인원이 늘어났다.

각 페스티벌 1부와 2부 사이에 열린 6.9제 최고 이모의 날에 전 실을 전달하는 니사금 선발 대회에는 정교대, 김희대, 단국대 등 3개 학교에서 18명이 참가하였다. 각 팀별 인터뷰 시에 차가 시간을 끌기려는 순서가 있어서 니사금 선발 대회로서의 의미를 더하였다. 인터뷰 후에는 워밍업 게임, 참가자가 게임, 라면 게임이 커피링 대회가 이어져서 심사 접수 제일의 기쁨이 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본교 박세영, 홍성민(치정원 3학년) 커피를 뛰어난 외모와 재치로 우승을 차지하였다.

광복에서 각 페스티벌 및 니사금 선발대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백암호에서는 왁스 커피링 대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광복대를 제외한 10개 대학에서 참여한 왁스 커피링 대회는 각 대학 학생들이 일반 용품 속에 실려 제 1대 구구를 30분 안에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교 보령과 이규복 교수님께서 general die, general context, oddball anatomy, detail carving, golding 등의 50개 재질 항목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본교 교수와 재질을 알은 만큼 정답을 기록하고자 carving을 치아에 학교명 대신 번호를 붙여는 불리먼트 형식으로 재질이 이루어진다. 심사 결과 1등은 원광대, 2등은 광복대 최수영(본교), 3등은 부산대(자



왁스 커피링 대회에서 3등을 차지한 본교 최수영 최수영(본교) 최수영

원광대) 최수영이다. "Mimim : Possible"은 2011년의 참가자들이 광복에서 게임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도 및 광암지를 나누어 받은 후, 광복대 내에 퍼져 있는 장소들을 찾아가 미션을 수행하거나 주어진 문제의 답을 알아낸 후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와 담당자에게 광암지를 확인받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교 1(대구의 사립)에서는 참가 게임의 미션이, 본교 2(후자의 게임)에서는 참가 게임으로 미션이 준비되었다. 광암을 모두 맞추고 미션을 모두 수행한 사용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예선수가 증정되었다.

## 6.9제 경기 부문

이영민 수습기자 / myway104@naver.com

경기	계회 장소	결과
농구	실내체육관	우승: 연세대, 준우승: 단국대
배구	실내체육관	우승: 연세대, 준우승: 단국대
아구	소운동장	우승: 경희대, 준우승: 서울대
축구	대목역 코트	우승: 경북대
축구	대운동장	우승: 광명대, 준우승: 경희대
탁구	대강당 2층	우승: 경북대(전종목)
테니스	테니스 코트	우승: 연세대, 준우승: 단국대
프리스티얼	일성당 PC방	우승: 친목대
카드라이더	일성당 PC방	우승: 광명대
스타크래프트	일성당 PC방	우승: 부산대

지난 1월 12일 전국 30개의 대학이 참여한 6.9제 열띤 경쟁기는 개회식(오후 3시)이었던 당일 오전 11시부터 일찍이 본교 운동장에서 열렸으며 그 중 스타크래프트, 카드라이더, 프리스티얼 경기는 광복대 복문 앞 일성당 PC방에서 열렸다. 스타크래프트를 제외한 구기운동의 열띤

은 대상을 오점으로 시행되었다.

본교는 테니스, 축구, 농구, 탁구, 스타크래프트, 프리스티얼 경기에 출전 하였다. 그 중 탁구는 남자 단식(이준환-문과 3학년), 남자 복식(정승원, 최신호-치정원 1학년), 여자 단식(장지은-치정원 1학년) 전 항목 우승이라는 최



▲ 우승한 탁구팀



▲ 탁구 단식에서 우승한 장지은 배우

기를 이루었다. 또한 축구경기에서 우승(교복-치정원 2학년 최 5명)을 거두었으며, 우승을 노르던 테니스는 4명에서 단국대에 아쉽게 패하고 있었다. 스타크래프트(원광-문과 3학년), 프리스티얼(김보경과 정-치정원 1학년) 경기는 아쉽게도 본교에서 패하고 있었다.



## 대한구강내과학회 신임회장 경북치대 최재갑 교수 선출

회장으로 선임된 순간

내년으로 내기 준비하는 분야에서 내로가 되었다는 것이 일찌감치 큰 명백한 결과였다. 또 한편으로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일들을 잘 소화해서 학회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기도 했다.

구강내과학회가 하는 일

구강내과학회와 결부 있으면 학문 활동만을 주된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과학에 기여해서 연구 결과를 환자에게 적용해서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를 도와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또 수업을 학문 활동도 해야 하지만 환자 치료도 하여야 한다. 또한 구강내과학회는 의료자도 되고 공헌을 한다. 정부가 보충 제도를 운영할 때는 학회 등 각 분야 별로 해당하는 학회의 도움을 받아 때문에 구강내과학회는 정부와의 협조적인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또나 이 국가에서인 정부의 교육이 있다. 수련의를 제대로 교육시켜서 수련회가 있어야 국가나 구강내과학회에서 잘 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강내과학회 회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

지금 치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전공의 제도이다. 2008년도 첫 전공의가 배출될 예정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있는데 구강내과학회 회장으로서 구강내과 수련생을 교육할 잘 시켜서 성장 해

못 된 전공의를 배출 해내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전공과는 일반인이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유능한 전공의를 배출해내는 것이 구강내과학회의 역할인 것이다. 이번 4월 2일에도 전국 구강내과 수련생을 경북대에 모아서 전공을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물론 연구, 환자 치료, 학술행회 개최 등 일반적인 업무도 잘 해나갈 것이다.

김학대 치과 대학 학생들에게 한 말이다

치과대학 다들하고 합창이 낡다는 것을 알 아셨으면 좋겠다. 치과대학은 연구의 차이만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맛, 열정, 열 등에 관련된 일들을 가진 다양한 학자들 치료한다. 치과 대학에 들어오시 제 사치, 실감 등을 공부해야하는지 결정해 주는 학생들이 있는데 치과학교 정신 건강을 다루는 학문이다. 치과에 진로하면 오는 환자들이 걸고 있던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실감해 환자, 당분간 환자 등 물에 어감이 있는 사람 물어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치과 역시도 인체에 관해 정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항상 우리의 사랑의 사랑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한다. 치과대학이 치료하는 영역은 비록 치과 후두암처럼도 인체를 이해하고 사랑의 마음과도 이해할 수 있어야 좋은 치과대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문 사 일에 단호한 공부관을 가지 말고 다양한 것을 읽고 교양을 넓히기를 바란다.



[최재갑 교수 약력]  
1980년 경북대 치과 대학 1회 졸업,  
1982년 구강내과 전공의 과정 수료,  
1986년 구강내과 교수 취임,  
대구구강내과학회 회장,  
아시아구강내과학회 조직위원장,  
경대병원수련연구회 회장,  
대구수련의학회 부회장.

## 대한소아치과학회 신임회장 경북치대 김영진 학장 선출

대한소아치과학회 신임회장으로 무리하고 임명된 학장이 선출되었다. 김영진 신임회장은 앞으로 예방과 장애 예방 치료 중요성을 제해하고도 조부를 밝혔다.

"제가 우리는 치료 밖에 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나 앞으로는 예방에 주의를 두고 많은 연구를 통해 예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일반 생활 복지에 많은 관심이 있었으나 더욱 의료 복지에 많은 주의를 수반한다. 특히 장애를 위한 치과대학은 진로학과도 할 수 있고 장애우 치료 전공의 숫자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에서는 2년 전 서울시 치과대학 협회와 공동으로 장애인 치과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제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성공하고, 운영은 서울시 치과대학이 할까 하고 있고 소아치과학회는 어떤 선하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 회장은 학생들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자기를 담양하겠다.

이렇게입니다. 사람들이 '제과사' 라는 지 없애 '제사' 라는 단어가 같이 배우기도 해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3차학원은 '제사시화병 사형'이란 과목으로 의정행사를 경험할 수 있으나 1학년 정도와 13학년은 고과과정에 의정행사과목의 이름을 더 들어가야 예정입니다."

[김영진 학장약력]

1977년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80년 경북대학교  
대학원 치과대학 석사  
(소아치과학전공)  
1988년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학고교수 교수 부임  
2001년 경북대학교 행정 치과전공서장  
현재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치과대학장학금 집행  
현재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장



CARTOON

그림 / 작가님 기차



## GPD제도 도입, 금물살 타다 정지!

### 대의원 표결서 정족수 부족으로 내년엔나 상정

과거 10여 년간 꾸준히 제기되어온 일반의 수련제도(이하 GPD제도) 도입안이 제1차 주의회에서 높은 찬성도를 얻으며 표결결과를 앞두고 2박2일째 대의원 표결정족수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GPD제도는 현행 차과교육 과정이 일반인 상임소속자는 학문에 치중되어있어 졸업 직후의 경쟁에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상응해서 지난 4월 들은 열린 공청회에서는 토론자들과 GPD제도 도입 필요성과 효과(1차 진행 및 현행 졸업생 다양성 검토, 공복의 부족 해결 등)에 대한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80%가 도입을 찬성했다. 수련책임자의 출생지는 보성읍, 구강내과 순으로

있었으며 수련 기간은 1~2년, 수련과목은 임플란트를 가장 선호했다.

한편, 긍정적인 반응 속에도 제도 도입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가능할지 현재 논의 분야이다. '임상의 제도의 존중될 수 있다', '판의 기준을 누가 할 것인가' 등의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이날 불투명하고 심문 행자가 될 10%가 찬성했다는 사실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불씨가 예상되지만 4월말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당초도입을 내세웠다. 따라서 이번 도입정족을 내년 총회에 재상정 되는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진용 기자 / gysms@hctsd.com

